한라시멘트, 생물다양성 보전 공로 '환경부장관 표창' 한라시멘트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매년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기업들의 기여도에 따라 우수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한라시멘트

S-OIL, 트래킹 하며 경영목표 달성 결의

알 감디 CEO·임직원 트래킹 행사

S-OIL(에쓰오일)은 서울 우이령길에서 임원과 부장급 이상 직원 200여 명과 함께 트래킹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알 감디 CEO(사진)는 우이령길 교현탐방지원센터(경기도 양주시)에서 우이동(서울시 강북구)에 이르는 6.5㎞ 구간을 걸으며 임직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오스만 알 감디 S-OIL CEO는 "기업경영은 산행과 같아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려면 상호 협력을 통한 최적의 의사결정과 리스크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정된 핵심 추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S-OIL은 지난해 완공한 RUC·ODC 프로젝트 이후 회사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화학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BGF그룹, 임직원 힘 모아 '사랑의 소리' 전달 BGF그룹은 기해년 첫 번째 '사랑의 소리'를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기금은 BGF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정기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활동으로 모인 재원과 그에 상응하는 BGF복지재단의 지원금이 더해져 마련된다. BGF 민승배 커뮤니케이션실장(오른쪽)이 사랑의달팽이 정해형 상임부회장에게 BGF 사랑의 소리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BGF리테일

중기유통센터, 신임대표에 정진수 임명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제12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진수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사진)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광양 출신인 정 신임 대표는 인하대대학원 재료공학 석사, 첨단정밀공학 박사 출신으로 1983년 중진공에 입사해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중소기업연수원장, 경영관리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 등을 거쳐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정책총괄업무, 내수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연계 지원 등 중소기업관련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본업인 중소기업 판로지원 역할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승호 기자 bada@

"세상의 모든 엄마를 응원합니다"

한샘, 엄마 응원 캠페인 진행

한샘은 2019년 연간 캠페인 주제를 "나는 엄마입니다"로 정하고 '세상의 모든 엄마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부엌가구회사로 태동한 한샘은 불편한 재래식 부엌가구가 주였던 70년대부터 현대식 입식 가구를 보급하며 어머니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 왔다.

시대가 흘러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을 응원함으로써 가족의 행복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취지이다.

올 한해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 주제는 '싱글맘'을 시작으로, '워킹맘', '전업맘'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는 미혼모다. 한샘은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20여 한부모 가정의 집을 새로 꾸몄다. 또한 한부모가정 돌봄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하는 한부모 가정에 자립 정착금을 주고 자립 시 필요한 생활용품을 담은 자립 응원키트도 함께 선물했다. /김승호 기자

트럼프 셧다운, 한반도의 스탠스

김 민 소장의 탕탕평평

얼마 전 고교선배의 연락을 받았다. 당신의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등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자문제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LA에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안타까운 부탁이었다. 아무튼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나 행보는 평범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특정 그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가시화 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의회도 아니고 미 행정부의 행보는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이다. 또한 미국의 불안정은 대한민국은 물론 여타 세계 여러 국가에 그대로 전이되기에 충분하다.

미국 트럼프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국가비상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정부의 부분폐쇄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속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각종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또한 그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트럼프는 그것을 매우 쉽게 실행할 수 있고 자신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직접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해소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군 예산으로 국경장벽 건설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1976년에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어떤 경우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 내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달렸다는 게 미국 유력 언론들의 설명이다.

다만 트럼프가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의 전면전은 물론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장인 에덤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가 비상사태인지를 묻는 법원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분명한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는 양당 합의로 이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의회가 비상사태를 취소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는 다만 그렇게 빨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나마 의회와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그 역시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할 때 예측하기가 어렵다.

미 하원은 '셧다운'이 끝난 후 그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이 소급해 임금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상원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무원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그 자체가 국가비상사태라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채 트럼프의 대통령으로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21일째를 맞은 미 셧다운 사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역대 최장기록을 깨며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미 국세청(IRS) 또한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황이지만, 행정부는 셧다운 기간에도 세금 환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과 위싱턴 국립 동물원,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도 모두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셧다운 종료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 셧다운 사태는 쉽게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문제 등 대한민국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결코 평탄치 않은 상황인데 미국의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와 대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적잖이 걱정이다. 한 마디로 여러 영역에서 결코 미국과 분리될 수 없는 한반도의 입장은 쉽게 말해 '약소국의 비애'이다.

/데일리폴리정치연구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IPO 추진은 제2의 창사"

'2019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올해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제2의 창사와 같다"며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올해엔 질(Quality)과 양(Quantity) 반등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1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2019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IPO 추진은 '이해관계자 경영'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상품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꼽았다. 그는 "상품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신계약 증대와 효율 개선에 힘써 고객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지난 11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2019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전략 강연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올 하반기 IPO 추진을 통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하고, 수익성·성장성 제고를 통한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려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신 회장은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단기 성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지만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다 보면 롱런할 수 없다"며 "리더십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 9기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 마케팅, 홍보, 사회공헌 등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체국예금 서포터즈 6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우체국예금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우체국예금 서비스 체험 및 홍보 ▲사회공헌활동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생은 25일까지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소속대학 소재지 관할 지방우정청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은 2월 7일 개별통지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팀장급 전보△ 안전정책팀장 성현국 (서울=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 부국장△산업·경제부 오성철 △금융·증권부 한동수 △ICT·유통부 이승제 ◇ 부문장 △뉴미디어 겸 연예·문화부 유아정 ◇ 부장△광고마케팅국 AD1부 이태우 △광고마케팅국 AD2부 이규원

◆**우리금융지주** ◇ 부사장 △ 경영기획본부 박경훈 △ 경영지원본부 최동수 ◇ 상무 △ 리스크관리본부 정석영 △ 준법감시인 황규목 △ 전략사업담당 이석태 ◇ 본부장 △ 전략기획부 신균배 △ 재무관리부 이성욱 △ 경영지원부 우병권 △ 브랜드전략부 김기린 △ 감사부 김병구 ◇ 부장 △ 비서실 최재필 △ 사업포트폴리오부 양기현 △ IR부 이정수 △ ICT기획부 강대현 △ 리스크관리부 김지일 △ 준법지원부 전재화 ◇ 부장대우 △ 재무관리부 곽성민 △ IR부 송양진 △ 경영지원부 김남곤 △ 경영지원부 조한웅 △ 브랜드전략부 김동경

◆ **환경부** ◇ 국장급 전보 △ 자연보전정책관 이호중

◆ **암롭코리아** ◇ 승진 △ 부사장 강미숙 △ 이사 구선미

부음

▲ 홍성오씨 별세, 박승근(KT에스테이트 커뮤니케이션TF장)씨 장인상 = 12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 발인 15일 오전 6시. ☎ 031-787-1503

▲ 이영숙씨 별세, 박건영(브레인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박중환(교보생명 울산센터장)·박현애(구암고등학교 교사)·박현주씨 모친상, 은희철(선일일렉콤 이사)·김일호(청도군청 계장)씨 장모상, 이진숙씨 시모상 = 13일,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5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30분. ☎ 053-200-6464